

Tasks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in the Era of Posthuman

Samjun Ryu *

Seoul Jangs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posthuman’ as a prominent issue in contemporary society and explore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posthuman era’. It also seeks to identify the challenges facing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within this evolving context.

[Contents] To achieve this, the article defines posthuman and the posthuman era by focusing on aspects such as the radical enhancement of human abilities, the dramatic extension of human lifespan, the integration of artificial devices with human bodies (cyborgization), and the humanization of machin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Furthermore, the challenges posed by this era include reconsidering the essence of humanity, reflecting on the legitimacy of posthumanization, discussing its societal impacts, and (re)establishing necessary social norms and institutions.

[Conclusions] Consequent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posthuman era, needs to guide, encourage, help, and empower people to live out humanity, pursue equality and peace, strive for cooperation and coexistence, and lead societal and human change.

[Keywords] Posthuman, Posthuman era,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Task

* **Corresponding to** Samjun Ryu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Jangsin University)
E-mail : samjryu@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포스트휴먼 시대,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

류삼준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논제 중 하나인 ‘포스트휴먼’이란 용어의 의미와 이 용어와 관련된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들을 ‘포스트휴먼 시대’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가속화될 포스트휴먼 시대에 요구되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를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징을 종합하여 포스트휴먼화를 인간 능력의 급진적 강화 혹은 향상, 인간 수명의 비약적 연장, 인공 구조물을 통한 인간의 기계화,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을 통해 이뤄지는 기계의 인간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포스트휴먼화가 이뤄질 시대가 현대인들에게 제기하는 도전으로는 인간(다움)의 의미에 대한 재고, 포스트휴먼화의 당위성 혹은 정당성에 대한 성찰, 포스트휴먼화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관련된 사회적 규범 및 제도의 (재)정립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개념 및 시대적 요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개신교 종교교육이 포스트휴먼 시대를 맞이하는 교육참여자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교육,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교육, 협동과 공존을 지향하도록 돕는 교육, 사회와 인류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힘을 주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먼 시대, 개신교 종교교육, 과제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논제 중 하나인 ‘포스트휴먼(posthuman)’이란 용어의 의미와 이 용어와 관련된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들을 ‘포스트휴먼 시대’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고 이 포스트휴먼 시대에 요구되는 한국 개신교의 종교교육의 과제를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는 단순히 포스트휴먼의 개념과만 연관된 것은 아니며 포스트휴먼이 오늘날의 인류에게 제기하는 몇 가지 도전을 바탕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처럼 본 소고가 포스트휴먼의 개념에만 그 논의를 한정하지 않는 이유는 현대사회는 분명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포스트휴먼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추구는 과학기술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로도 계속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보기에, 국내에서 이뤄진 그동안의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개신교 종교교육학적 및 신학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져 왔다. 첫째는 포스트휴먼이 가지는 철학적 전제나 지향점, 특히 포스트휴먼적 인간 이해를 개신교의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포스트휴먼 시대에 적절한 개신교적 인간관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교육의 실시를 주장하는 연구이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참다운 개신교적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교육에 있어서 연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양성진의 연구(Yang, 2024: 545-575)와 포스트휴먼을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존재론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이 포스트휴먼 시대에 진정한 관계를 이끄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민수의 연구(Kim, 2019: 1-269)가 있다. 두 번째는 포스트휴먼이 이 시대에 야기하고 있거나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리적 논쟁점을 중심으로 개신교 윤리적 혹은 종교교육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윤리나 교육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포스트휴먼과 연관된 과학기술이 수반하는 윤리적 사안들을 성찰하고 이에 대한 개신교 윤리적 과제를 제시한 유경동의 연구(Yoo, 2018: 111-135)와 포스트휴먼화(化)가 가져오는 윤리적 이슈들이 종교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휴먼화가 개신교 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 이은경의 연구(Lee, 2023: 675-702)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이 다룬 포스트휴먼이 내포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과 포스트휴먼이 가져올, 윤리적 논쟁점을 포함한 다양한 영향, 모두에 관심을 두면서 이 둘을 ‘포스트휴먼 시대’라는 이름에 담아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를 제안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포스트휴먼과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는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포스트-휴머니즘’(혹은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기보다는 ‘포스트휴먼-이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

록 다양한 포스트휴머니즘의 분류법이 존재하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절대적인 분류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몇몇 학자들은 편의상 포스트휴머니즘을 크게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이즘 이렇게 두 갈래로 분류하고 있는데, 먼저 포스트-휴머니즘이란 전통적인 휴머니즘이 내포하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이분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인간우월주의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를 해체하거나 극복하려는 움직임이다(Ferrando, Lee trans., 2021: 120-126; Kim, 2017: 65; Woo, 2021: 26). 반면 포스트휴먼-이즘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현재의 인간이 가진 속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Kim, 2017: 65; Park, 2019: 33; Woo, 2021: 255). 따라서 포스트-휴머니즘이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는 담론이라면 포스트휴먼-이즘은 기존의 인간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추구하는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이렇게 포스트-휴머니즘이 아닌 포스트휴먼-이즘 중에서도 포스트휴먼을 중심 주제로 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포스트휴먼이 아닌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포스트-휴머니즘)을 논제로 삼게 되면 아무래도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트휴먼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다룰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안함으로써 종교교육이 가지는 실천적 성격 및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가 사상보다는 과학기술을 통해 도래하고 있는 포스트휴먼으로 압축되는 현시대의 상황을 다루는 이유는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먼-이즘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 및 교집합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한정된 지면에 맞게 논의의 폭을 좁히고 이를 통해 포스트휴먼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사상이나 이론보다는 포스트휴먼이라는 과학기술이자 현상 그 자체에 더 몰입하기 위함이다.

II. 포스트휴먼의 개념으로 살펴본 포스트휴먼 시대

이제 본 장에서 연구자는 포스트휴먼이란 용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포스트휴먼이란 무엇인가?

포스트휴먼은 문자 그대로는 시간상으로 ‘이후’나 ‘다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 ‘post’와 인간을 뜻하는 ‘human’의 합성어이다. 다만 여기서 포스트는 경우에 따라 ‘어떤 것을 넘어서거나 벗어난다’는 의미에서의 ‘탈(脫)’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포스트휴먼

을 규정하는 시각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포스트휴먼의 한국어 번역 역시 ‘현재의 인간과는 구별되는 미래형 인간’을 의미하는 ‘후기인간’과 ‘지금의 인간과는 생물학적 조건이나 본성 등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인간’이라는 뜻의 ‘탈인간’,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에 연구자는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많은 학자들처럼) ‘포스트휴먼’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두 의미를 모두 다루고자 한다.

포스트휴먼과 유사한 용어로는 ‘트랜스휴먼(transhuman)’이 있는데, 김건우는 보스트롬(Nick Bostrom)의 주장을 인용하여 트랜스휴먼을 인간의 지적, 육체적, 심리적 능력의 향상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변화된 인류라고 설명하고 있다(Kim, 2016: 30-31).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랜스휴먼을 인간과 포스트휴먼 사이의 과도적 형태의 인간으로 간주하면서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Cheon, 2016: 100; Kim, 2016: 30; Kim, 2019: 143-144)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학자들은 휴먼,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사이의 구별이나 경계가 불분명함으로 차라리 트랜스휴먼을 포스트휴먼이란 개념 안에 포함시켜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제안하기도 한다(Kim, 2016: 31-32; Woo, 2020: 100-102).

이에 본 연구는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 사이의 세부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각각의 용어가 가지는 불분명함이나 애매모호함 등의 이유로, 또 불필요하게 논의가 길어지는 것을 막아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지면상의 이유로 포스트휴먼을 트랜스휴먼을 포함한 광의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포스트휴먼을 ‘지금의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기능 등을 넘어서 향상이되거나 강화된 능력이나 기능 등을 보유하여 현재의 기준으로는 인간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Cheon, 2016: 100; Shin, 2020: 15). 물론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잠정적 개념은, 김동환이 지적했듯이, 기존의 인간, 기존과는 다른 인간, 미래의 인간 등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어떤 존재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뜻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Kim, 2022: 144). 이에 보다 자세한 포스트휴먼의 개념은 다음 단락에서 계속해서 다루고자 한다.

2. 포스트휴먼화로 본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먼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여 네 가지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 네 가지 논의는 포스트휴먼 자체의 개념인 동시에 포스트휴먼 시대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기에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동시대 안에는 너무 많고 다양한 특성과 현상이 공존하기에 한 시대를 무엇 무엇의 시대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포스트휴먼 시대’란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는 현시대를 포스트휴먼이라는 단일 주제로 속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휴먼이 현시대의 주요 이슈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덧붙여 한 가지 미리 밝혀둘 것은 포스트휴먼 시대란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과학기술이 광

범위하게 상용화되거나 보편화되어 모든 인류가 정말로 새로운 인간인 포스트휴먼이 된 시대는 아니란 점이다. 하지만 현시대는 관련된 과학기술의 분명한 등장으로 인해 포스트휴먼으로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시작되어 엄청난 큰 재앙으로 인해 인류의 문명이 심하게 파괴되지 않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시기로 되돌릴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 지금의 인간과는 분명하게 다른 포스트휴먼의 출현이 너무도 명확해서 멈출 수 없는 그런 시대란 뜻에서 포스트휴먼 시대로 충분히 규정될 수 있다.

1) 인간 능력의 급진적 강화 혹은 향상

그렇다면 포스트휴먼의 의미이자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이 지닌 여러 가지 고유의 기능이나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급격하게 강화되거나 향상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이다(Cheon, 2016: 100). 달리 말하면, 김건우의 표현대로, 더 강하고 더 빠른 육체를 지닌 인간, 더 똑똑한 뇌를 지닌 인간이 출현하게 되는 것인데(Kim, 2016: 32-33), 그렇다고 단순히 기존의 인간에 비해 신체나 인지 능력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정서적 능력, 그리고 문화나 삶, 심지어 종교를 향유하고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행동이나 의지 등에 있어서도 분명한 강화나 향상이 이뤄지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휴먼 시대인 것이다(Ferrando, Lee trans., 2021: 265; Sandel, Lee trans., 2016: 25; Shin, 2014: 104).

이러한 강화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로는 “원자 수준에서 물질의 구조를 [통제하여]”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 내는 나노(nano)과학 혹은 나노기술(Shin, 2014: 93), 생물의 유전자나 줄기세포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대표로 하는 생명공학, 특수한 약물의 복용이나 주입, 장기나 의체((擬體) 등의 장치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의학 혹은 로봇공학(Kim, 2016: 36-42),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기술을 바탕으로 감각이 상실된 신체의 일부를 복구하는 기술을 다루는 정보·컴퓨터과학이나 인지신경과학(Shin, 2014: 66) 등이 있다. 다만 앞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진도를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이러한 인간 능력의 강화나 향상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인간과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아예 신체 조건이나 능력이 강화되거나 향상된 채 태어나는 아기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2) 인간 수명의 비약적 연장

두 번째로 포스트휴먼 시대는 여러 가지 생존의 조건이 개선되면서 현재의 인간보다 비약적으로 연장된 수명을 가진 포스트휴먼이 출현하는 시대를 뜻한다. 쉽게 말하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포스트휴먼이 등장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수명의 연장은 인간의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나 예방법, 세포의 재생이나 합성 유전자를 통한 근육의 퇴화 방지, 노쇠하거나 손실된 신체의 복구나 교체 등, 앞서 인간의 능력 향상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과학기술 및 의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수명을 예측하고 둔화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한다(Babin, Yang trans., 2007: 23-26; Sandel, Lee trans., 2016: 25; Shin, 2014: 78). 특히 포스트휴먼의 개념이 말하는 수명의 연장은 단순히 몇 년이 아닌 적게는 수십여 년에서 좀 더 먼 미래에는 수백여 년이 연장되는, 궁극적으로는 노화가 아예 제거되어 반영구적인 생명을 누리는 비약적인 것을 뜻한다.

물론 인간 능력의 향상과 마찬가지로 포스트휴먼 시대는 이제 서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현재로서는 이러한 수명의 비약적 연장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학이나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전문가들이 예측하거나 목표로 하는 수준에 비하면 분명 초기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hin, 2014: 77-83). 하지만 첫 번째로 논의한 인간 능력의 강화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인 이 수명의 연장 역시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미래형 인간인 포스트휴먼으로의 분명한 움직임이란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시대상이라 할 수 있다.

3) 인공 구조물의 장착을 통한 ‘인간의 기계화’

셋째,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의 신체나 장기의 일부가 최첨단의 신경과학적, 뇌공학적, 의공학 기술로 바탕으로 한 인공적인 구조물(주로 기계나 전자장치)로 대체되는,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이 신체의 내외부에 장착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구조물은 주로 손상되었거나 상실된 신체나 장기의 일부를 대체하며 상당수는 인간의 뇌나 신경과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인공적으로 제작된 장기나 프로스테시스(prosthesis)와 같은 의체의 이식이나 인간의 뇌에 칩을 장착하고 이를 전자장치(컴퓨터)와 물리적으로 연결한 뒤 전기적 자극을 주어 인지나 행동에 변화를 가하거나 반대로 뇌의 특정한 신호를 컴퓨터로 전송해 연결된 기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해당된다(Kim, 2016: 32-33; Rhee, 2020: 60; Shin, 2014: 86). 이를 ‘인간의 기계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물학적 포스트휴먼’의 출현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며(Kim, 2016: 35), ‘호모 사이보그(homo cyborg)’라고 명명하기도 한다(Rhee, 2020: 63).

이와 같은 인공 장기나 기계 등의 장착을 통한 인간의 기계화는, 한편으로는 앞서 서술한 포스트휴먼의 첫 번째 특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적 및 지적 한계를 극복하여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인간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상되거나 약화된 신체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거나 장애를 제거하여, 궁극적으로는, 포스트휴먼의 두 번째 의미처럼,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시대의 이 세 번째 특징인 인간의 기계화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다음에 서술할 네 번째 특징인 ‘기계의 인간화’와도 대비되고 처음 두 특징이 목적이나 지향점에

대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방법에 대해 강조한 것이기에 따로 서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신체 및 장기의 대체 역시 아직까지는 과학자들이 예측하거나 목표로 하는 수준에 비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현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로 볼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장기나 의체, 전뇌(電腦) 등이 개발되어 이것들이 인간의 생물학적 몸을 대체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Kim, 2016: 33).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인공 구조물의 장착은 인간이란 유기체와 기계가 결합하여 현재의 전형적인 인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포스트휴먼)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Park, 2018: 15).

4) '기계의 인간화'

포스트휴먼 시대의 네 번째 특징은 인간의 변화나 향상에 초점을 둔 이전의 특징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추론, 판단, 선택을 수행하는” 인간 수준의 혹은 그 이상의 인지, 사고, 행위 등의 능력을 갖춘 기계(인공지능, 로봇 등)의 출현이다(Shin, 2020: 20). 이는 앞서 서술했던 인간의 기계화와는 반대로 기계의 인간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인공적 포스트휴먼’으로 명명되기도 한다(Kim, 2016: 34-35). 이와 관련하여 어떤 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기계화된 인간과 여기서 언급하는 인간화된 기계가 공진화(co-evolution)할 것, 즉 여러 가지 속성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Kim, 2016: 34; Rhee, 2020: 73).

앞서 서술했던 특징들과 유사하게 현재의 인공지능이나 로봇 역시 아직 확실하게 인간과 비등하거나 인간을 넘어선 수준의 능력, 특히 감정, 자율성, 자유의지 등을 가진 존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심지어 이러한 존재의 출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의 도구로서 인간을 보조하거나 대체하여 인간의 업무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차츰 일상화되고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는 인간과 비등하거나 유사한, 혹은 인간을 넘어선 수준의 능력을 갖춘 기계인 진정한 의미의 포스트휴먼이 출현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그 능력이 얼마나 인간과 유사한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을 닮은 기계들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처럼, 혹은 인간과 반려 동물이나 애착을 둔 물건 사이의 관계처럼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면(Babin, Yang trans., 2007: 164) 기계의 인간화 역시 포스트휴먼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III. 포스트휴먼 시대가 제기하는 도전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인간의 향상, 수명의 연장,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라는 특징을 가진 포스트휴먼 시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기하는 질문이나 도전은 무엇일까?

1. 인간(다움)의 의미에 대한 재고

첫 번째로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의 변화를 그 근간으로 삼기에 우리에게 인간을 바라보고 정의하는 관점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인간관에 대한 재고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다움 혹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고이다. 부연하자면, 포스트휴먼 시대는 신체의 일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계화하고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계나 디지털 개체가 등장하는 세상이므로 인간과 기계의 구분과 관련하여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또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구별 짓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낸다. 물론 아직까지는 매우 혼란스러운 정도의 기계화된 인간이나 인간화된 기계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신체의 일부가 인공의 것으로 대체 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지거나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이 기능, 외모, 능력, 역할, 관계 등에서 인간과 더욱 유사해질 경우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존재와 관련된 논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hee, 2020: 76; Shin, 2014: 49-56).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시선은 물론 인간이란 존재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련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대이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정체성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포스트휴먼 시대는 생물학적 인간의 능력이나 기능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질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나 치료를 통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일종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에 과연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지, 인간다움이나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목적과 의미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과 관련된 질문을 제기한다. 더욱이 포스트휴먼화로 인해 인간 자신의 변화나 향상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강화된 능력과 연장된 수명을 바탕으로 생활환경이나 생활방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게 되면 삶의 의미나 목적을 묻는 질문은 더욱더 시급한 질문이 될 것이다(Park, 2018: 129). 덧붙여 이러한 물음들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과 직결되므로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과학기술이나 그 영향은 과연 인간의 존엄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일 포스트휴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나 명확한 답론의 제시 역시 포스트휴먼 시대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다(Kim, 2016: 51). 그리고 이러한 논제에 언젠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Kim, 2016: 52).

2. 포스트휴먼화의 당위성 혹은 정당성에 대한 성찰

두 번째로 포스트휴먼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에게 포스트휴먼화(혹은 포스트휴먼 기술)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같은 포스트휴먼화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에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요구는 앞서 제기됐던, 포스트휴먼으로의 변

화가 인간다움의 실현이나 인간의 고유한 가치나 존엄성의 수호(혹은 훼손)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대답을 바탕으로 포스트휴먼화의 필요성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상반된 두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포스트휴먼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포스트휴먼적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포스트휴먼으로의 움직임이 인간에게 편리, 건강, 행복, 성취감, 자아의 실현 등을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포스트휴먼화를 긍정하는 동시에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Cheon, 2016: 103). 또한 이 입장은 현재의 인간이 이미 과거의 인간보다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살며 더 똑똑해지고 능력도 커졌기 때문에 현실에서 인간의 포스트휴먼화(혹은 트랜스휴먼화)는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인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Cheon, 2016: 100).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포스트휴먼 관련 기술의 안정성을 주장하면서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사회적 격차나 불평등, 윤리적 문제 등도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휴먼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Cheon, 2016: 100).

이와는 대조적으로 포스트휴먼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대체로 인간이나 인간의 생명을 신성한 것으로 보고 인간의 고유성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포스트휴먼화를 인간의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된, 인간의 타고난 모습에 인위적인 (부정적) 변형을 가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Kim, 2016: 49-50). 특히 포스트휴먼화를 반대하는 입장(특히 생명보수주의자)은 인간에 대한 급격한 변화나 개조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 인권의 침해, 존엄성의 훼손, 자율성의 침해 등, 사회적 및 윤리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포스트휴먼화의 결과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Cheon, 2016: 100-102).

3. 포스트휴먼화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세 번째로 포스트휴먼 시대는 우리에게 포스트휴먼화가 현재 및 미래의 사회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포스트휴먼화에 대한 찬반 논쟁의 연장선으로 포스트휴먼화 자체에 초점을 둔 이전의 논의와는 달리 포스트휴먼화가 가져올 영향, 이를테면 포스트휴먼의 기술은 과연 안전한가 아닌가, 포스트휴먼 기술이 미래에 가져올 영향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또 포스트휴먼으로의 전환은 인간에게 어떤 혜택이나 위해를 가져오는가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트휴먼을 향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변화는 급격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며, 포스트휴먼화의 영향은 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인간 사회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Shin, 2014: 98-99).

일각에서는 포스트휴먼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으로 인간과 인간화된 기계 사이의 대결 및 갈등을 예측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 실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대결이나 갈등을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는 현상으로 기계나 인공지능 등이 인간의 업무나 역할을 대체하면서 사람들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제적으로 요구받거나 일자리를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인간은 인공지능이나 인간화된 기계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이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또 이들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나 피해는 무엇인가 등을 규명할 것을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휴먼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논쟁 중 하나는 과연 이 포스트휴먼화의 혜택이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인지 아닌지 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은 포스트휴먼 관련 과학기술들은 그 개발 및 실현을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포스트휴먼으로의 ‘업그레이드’는 모든 인류가 아닌 자본 및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수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Babin, Yang trans., 2007: 39; Harari, Kim trans., 2017: 474-480; Son, 2016: 15-16). 이러한 예상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이와 관련된 불평등의 문제, 이를테면 빈부격차에 따라 능력의 향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발생하고 능력이 향상된 사람이 그 능력의 우위를 앞세워 경쟁에서 앞서게 되면서 권력이나 부를 장악이나 독점하게 될 가능성, 상대적인 약자에 대한 지배나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Babin, Yang trans., 2007: 80; Shin, 2014: 223).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단지 부와 권력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것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교육, 의료, 정보, 사회활동 등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Shin, 2014: 223). 특히 이러한 포스트휴먼 시대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양극화 현상은 단지 개인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사회 간에, 또 국가 간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Kim, 2022: 146-151).

물론 포스트휴먼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도 가능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적 약자가 능력의 향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혜택을 입게 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Kim, 2016: 61).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김건우는 과거 인간의 역사나 현재 인간 사회의 행태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기 보다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Kim, 2016: 62).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수혜자는 그것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꼭 경제적 능력이 선별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수혜자 선별의 기준과 관련된 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Kim, 2016: 63-64).

4.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 및 제도의 (재)정립

마지막으로 포스트휴먼 시대는 우리에게 포스트휴먼이란 개념 및 그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규범, 윤리, 법률, 제도, 정책 등의 수립 및 개정을 요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포스트휴먼화는 단순히 인간, 기계, 생명 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나 인식, 사상 등의 변화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방식의 변화도 요구하며, 이 생활방식의 변화는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존의 규범, 윤리, 법률, 제도, 정책 등으로는 소화하기 벅찬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나 문제의 발생으로 귀결될 것이다(Kim, 2016: 45).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나 문제의 발생은 포스트휴먼화를 해석하고 판단한 뒤에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덕적, 윤리적, 법리적 체계를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포스트휴먼 시대에 맞춰 우리는 기존의 규범, 윤리, 법률, 제도, 정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새로운 혹은 보다 적절한 것들을 연구하고 준비하며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인간이 가지는, 또 포스트휴먼화된 존재가 가져야 할 지위, 권리, 책임, 의무 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위, 권리, 책임, 의무 등은 어떤 과정이나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수립되어야 하는지 등의 논의가 그 핵심이 되며(Kim, 2016: 44-45; Kim, 2019: 153) 이는 앞서 얘기했던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율성, 포스트휴먼화의 정당성, 포스트휴먼화의 영향 등과도 깊이 연관된다. 특히 고도로 기계화된 인간이나 인간화된 기계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된다면 이들과 기존의 인간 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들을 행위의 주체로 간주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윤리적 및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다(Kim & Choi, 2016: 171).

이처럼 포스트휴먼화가 진행된다면 관련된 새로운 규범, 윤리, 법률, 제도, 정책 등은 필수이며, 또한 이것들은 존재에 대한 시각,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문제, 실제 삶 속에서의 이슈 등과도 직결되므로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닌 철학적,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Kim & Choi 2016: 184). 이와 관련하여 김경환과 최주선은 아직 현대사회는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이나 법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법이 기술의 발전에 비해 뒤처져 생긴 법의 공백기에는 항상 누군가가 희생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법이 기술을 뒤따를 것이 아니라 기술보다 선제할 수 있도록 포스트휴먼 시대를 대비한 법을 미리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Kim & Choi, 2016: 155-159).

IV. 포스트휴먼 시대가 요구하는 개신교 종교교육

그렇다면 이러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성과 도전이 개신교 종교교육에 요구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수많은 과제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교육

포스트휴먼 시대를 맞이하여 개신교 종교교육이 힘써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교육참여자로 하여금 인간다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다. 사실 포스트휴먼의 개념은 인간을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완벽해져야 하는 존재로 간주하면서 인간다움의 의미를 지나치게 인간의 향상이나 수명의 연장 등에 두는 경향이 있다(Woo, 2021: 246-247, 254-255). 하지만 개신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들은 인간을 단지 생물학적 존재로만 간주하지 않으며 인간다움의 참 의미를 신체적 및 지적 발전에만 두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주어진 생을 짧게 마감한다 하더라도 신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부여된 능력, 환경, 인간관계, 상황 등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모습(2 Thess 5:18), 삶과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모습(1 Sam 2:6-7) 역시 인간다움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개신교 종교교육은 교인들로 하여금 인간의 향상이나 수명의 연장을 일부러 거부하거나 폄하하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 자체를 인간다움의 전부로 삼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특히 개신교는 개인의 행위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성취적 가치’가 아닌 신의 사랑의 대상이기에 신으로부터 고유한 존엄성을 부여 받았다고 하는 ‘존재적 가치’를 견지하는 종교이므로(Lee, 2016: 33-34) 그 종교교육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능력, 젊음, 완벽함 등을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개신교적 근거(존재적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돕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개신교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의 참 의미는 신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 그 자체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의 사명을 받은 존재인 인간이 신께서 주신 한정된 삶을 통해 어떤 식으로 스스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표출하고 성취해 가느냐에 달려있기도 하다(Acts 20:24).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자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인간의 존재 이유 및 삶의 목적을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돕는 것, 또 종교 생활 가운데 깨달은 신의 의지와 섭리를 바탕으로 보다 인간다운 삶, 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 역시 개신교 종교교육이 포스트휴먼 시대에 추구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Matt 5:13-16).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먼 시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수많은 인간다운 삶의 모습 중 개신교

종교교육이 힘써야 할 인간다움을 향한 세 가지 구체적인 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2.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교육

우선 개신교는 신도들로 하여금 인간다움의 길로서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종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나눠서 설명하면, 먼저 평등과 관련해서 개신교 종교교육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개신교인들이 앞장서도록 힘써서 도와야 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과학기술은 초기에는 고비용을 이유로 그 혜택이 특권층에게 편중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신교 종교교육은 그 교육참여자들로 하여금 포스트휴먼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개신교의 정신을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평등의 이슈에 관심을 갖는 한편(Matt 25:35-40), 포스트휴먼화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나 계층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들에게 관련 과학기술이 선용되는, 예를 들면 질병의 치료나 장애인의 편의 증진, 인권의 수호 등의 방향으로 사용되는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모아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제를 갖는다.

또한 개신교 종교교육은 포스트휴먼 시대를 맞이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평화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일 (앞서 서술한) 포스트휴먼화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 심화될 경우 이는 자칫 다양한 형태의 갈등, 차별, 폭력 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개신교 종교교육은 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평화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개인의 안녕 차원이 아닌 사회적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인류 공동체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의 회복 및 지속을 추구하는 차원의 평화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Park, 2008: 85-86; Wolterstorff, 2004: 23-24). 달리 말하면 개신교 종교교육은 교육참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한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 차별, 폭력 등은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한편 상호이해, 치유, 조화, 화해, 용서 등은 꾸준히 실천하여 각박한 현실 가운데에도 한국사회와 세계 곳곳에 평화가 깃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Matt 5:9; Ryu, 2021: 365; Sohn, 2020: 25-26).

3. 협력과 공존을 지향하도록 돕는 교육

이러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신교 종교교육은 또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의 개신교인들로 하여금 협

력과 공존을 힘써 지향하도록 돕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분명 포스트휴먼-이즘은 다분히 능력이나 지능 등이 더 뛰어난 사람이 생존하거나 더 많아져야 한다는 우생학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현 인류를 미완의 존재이자 결핍의 존재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불완전성과 부족함을 다양한 과학기술로 극복하여 보다 완성되고 약점이 없는 존재로 개조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Woo, 2021: 242). 물론 냉정하게 말한다면 인간은 미완의 존재이자 결핍의 존재가 맞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과연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설사 맞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포스트휴먼이 되는 것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되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함이나 불완전성은, 개신교의 정신에 따르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며, 꼭 포스트휴먼으로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상호 간의 사랑, 존중, 배려, 나눔, 협력 등을 통해 얼마든지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 Cor 1:26-27; Rom 8:28). 이에 개신교 종교교육은 교인들로 하여금 인간의 부족함이나 불완전성 등을 신의 섭리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한편 이러한 부족함이나 불완전성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신앙심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 간의 협력과 배려, 존중, 상호의존 등의 실천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포스트휴먼 시대를 맞이하여 개신교 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포스트휴먼의 개념은 앞서 서술했듯이 인간의 향상이나 개선을 추구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건강한 인간상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한편, 능력의 부족을 무능력이나 ‘쓸모없음’으로, 노화를 추하거나 비참한 것으로, 장애를 결함이나 비정상으로 간주하여 이것들을 회피, 제거, 치료, 교정 등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Ha, 2016: 135-146). 하지만 개신교의 관점에 볼 때 모든 인간은 능력이나 모습, 조건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서로 의존해야 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인 동시에 공존을 위해서 서로 연대해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이다(1 Cor 12:27; Kim, 2020: 67-68). 따라서 개신교 종교교육은 각자에게 주어진 상태와 조건을 신의 은총과 섭리 아래 있는 것으로 가치 있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다 함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존과 공생의 공동체 및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도록 사람들을 이끌 필요가 있다(Lee, 2023: 691).

물론 김동환의 지적처럼 개인 간의 격차나 불평등이라면 어느 정도 협력이나 공존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국가 간의, 또 계층 간의 지배 및 종속의 관계를 완전하게 개선하거나 해소하여 협력과 공존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 있다(Kim, 2022: 156).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협력과 공존을 실천하고 사회나 국가를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과 공존의 공동체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와 인류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힘을 주는 교육

연구자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과제는 교육참여자들이 평등과 평화, 협력과 공존의 공동체를 향한 실제적인 사회와 인류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여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서술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포스트휴먼화가 현대사회와 그 구성원들에 가져올 사회적 변화 및 영향을 주시하면서 포스트휴먼화가 야기할 수 있는 손해나 위협 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약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도록 돕는 것이다(Sandel, Lee trans., 2016: 39; Son, 2018: 285-288). 이때 중요한 것은 포스트휴먼화가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영향이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그 방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실천을 위해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로 포스트휴먼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적 변화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의료,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인식, 규범, 법률, 제도, 정책 등을 공공선에 부합하는 선에서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개신교 종교교육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Ryu, 2023: 635).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개신교 종교교육은 개신교인들로 하여금 포스트휴먼화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신체적 피해 혹은 경제적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도, 정책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제안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시민단체, 학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이웃종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및 법률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더 나은 것을 [건의하여]” 사회나 국가가 이를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힘쓰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Ryu, 2023: 636).

포스트휴먼 시대의 개신교 종교교육이 교육참여자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도와야 할 세 번째 사회적 변화는 포스트휴먼화가 인류와 지구에 유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포스트휴먼화의 긍정적이고도 이상적인 목적, 즉 현대사회와 인류가 포스트휴먼화를 통해 지향해야 할 적절한 방향 및 가치를 이웃종교인은 물론 사회 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대화 및 공론화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Kim, 2018: 231; Ryu, 2023: 633). 특히 사회나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과학기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특성, 가치관, 신념, 기대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므로(Han, 2021: 298-301)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 가치관, 사상, 기대, 신념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종교와 그 교육은 사회의 성격이나 방향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신교 종교교육 역시 성도들로 하여금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류가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 윤리관, 사상 등을 사회의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공론화를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스트휴먼의 과학기술이 사회의 공공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또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생명체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이 될 필요가 있다.

V. 나가는 말

이상으로 본 소고는 포스트휴먼이라는 논제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포스트휴먼 시대를 인간 능력의 급격한 강화나 향상, 인간 수명의 비약적 연장,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대로 규정하고 이 시대가 던지는 화두로 인간다움의 의미에 대한 재고, 포스트휴먼화의 당위성 및 정당성에 대한 성찰, 포스트휴먼화가 야기할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관련된 규범 및 제도의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성 및 화두를 바탕으로 개신교 종교교육이 힘써야 할 과제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교육,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교육, 협력과 공존을 지향하도록 돕는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와 인류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힘을 주는 교육을 제안했다.

끝으로 연구자는 이 부족한 연구가 한국의 개신교 종교교육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개신교가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되 반대로 그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대비한 종교교육에 힘쓰기를, 특히 종교교육을 통해 개신교인들이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과학기술과 그 진보가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용되는 미래를 펼쳐 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염원한다. 그렇게 된다면 포스트휴먼 시대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본 소고를 마치고자 한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대한성서공회 (2001).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Translated in English)
Korean Bible Society. (2001). *The Holy Bibl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Seoul: Korean Bible Society.

[Secondary Sources]

Babin, D. PH1: *Manuel d'usage et d'entretien du Post-Humain*. 양영란 옮김 (2007).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서울: 궁리출판. (Translated in English) Babin, Dominique. *Manual of Use and Maintenance of the Post-Human*. Yang, Y. R. (trans.) (2007). *Encounter with*

- Post-Human*. Seoul: Kungree Press.
- Ferrando, F. *Philosophical Posthumanism*. 이지선 옮김 (2021).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 휴먼 시대를 이해하는 237개의 질문들. 파주: 아카넷.
- Harari, Y. N.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김명주 옮김 (2017). 호모 테우스: 미래의 역사. 파주: 김영사.
- Kim, D. (2020).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51-79.
- Kim, D. H. (2022). A Posthuman Socio-Ethical Direction: from a Perspective of the Third World Theology.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53, 141-175.
- Kim, J. J. (2019). Humanities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9, 125-158.
- Kim, M. S. (2019). *The Way of Christian Education in Posthuman Er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Kim, U. H. (2018). Christian Ethics of Becoming in Posthuman Age. *Theology and Society*, 32(2), 211-243.
- Lee, E. K. (2023). The Impact of Posthumanization on Religion and Education in the Age of Technology and Implic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Theology and Praxis*, 86, 675-702.
- Park, I. (2008). The Role of Religions for Peace Realization: Focused on the Ascetic Practice of Catholicis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8, 81-98.
- Ryu, S. J. (2021). Christian Sabbath and Christian Education in the Era of 'Life Crisi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339-375.
- Ryu, S. J. (2023). Tasks of Church Edu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 Four Tasks of Practical Theology by Richard R. Osmer. *Theology and Praxis*, 86, 613-641.
- Sandel, M. *The Case against Perfection: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이수정 옮김 (2016). 완벽에 대한 반론: 생명공학 시대, 인간의 욕망과 생명윤리. 서울: (주)미래엔.
- Sohn, W. (2020). A Critical Study on "Religious Studies" Textbook of Protestant School in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Peac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4(1), 21-40.
- Son, W. C. (2018).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68, 267-299.
- Wolterstor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C. W. Joldersma, & G. G. Stronks (ed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Yang, S. J. (2024). Compassion-Cultivation Education for Human-Becoming in the Post-Human

- Age: Education for Connecting with the Sacred, Rediscovering Subjective Self, and Participating in the Suffering of Others. *Theology and Praxis*, 88, 545-575.
- Yoo, K. D. (2018). Post-Human and Science Technology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ask of Christian Ethics. *Theological Thought*, 183, 111-135.
- 김건우 (2016). “포스트휴먼의 개념적, 규범학적 의의”.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와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엮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파주: 아카넷. (Translated in English) Kim, G. (2016). The Conceptual and Normative Significance of Posthumans. Korea Institute of Posthuma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sthuman Society (eds.). *The Human in the Posthuman Era*. Paju: Acanet.
- 김경환, 최주선 (2016).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와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엮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파주: 아카넷. (Translated in English) Kim, K. H. & Choi, J. S. (2016). Framework and Issues of Posthuman Law. Korea Institute of Posthuma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sthuman Society (eds.). *Humans in the Posthuman Era*. Paju: Acanet.
- 김종갑 (2017). “2장 포스트휴먼, 그는 누구인가?” 지구에는 포스트휴먼이 산다. 몸문화연구소 엮음. 서울: 필로소픽. (Translated in English) Kim, J. (2017). Chapter 2: Posthuman, Who is it? Institute of Body and Culture (ed.). *Posthumans Live on Earth*. Seoul: Philosophik.
- 박일준 (2018). 인공지능 시대, 인간을 묻다: 인간과 기계의 공생을 위한 포스트휴먼적 존재론. 서울: 도서출판 동연. (Translated in English) Park, I. J. (2018). *Asking the Meanings of Huma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sthuman Ontology for the Symbiosis of Humans and Machines*. Seoul: Dongyeon Press.
- 박휴용 (2019).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의 미래. 전주: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Translated in English) Park, H. Y. (2019). *Posthumanism and the Future of Education*. Jeonj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ress.
- 손화철 (2016). “포스트휴먼 시대의 기술철학”.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와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엮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파주: 아카넷. (Translated in English) Son, W. C. (2016). Philosophy of Technology in the Posthuman Era. Korea Institute of Posthuma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sthuman Society (eds.). *Humans in the Posthuman Era*. Paju: Acanet.
- 신상규 (2014).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서울: 아카넷. (Translated in English) Shin, S. G. (2014). *The Future of Homo Sapiens: Posthuman and Transhumanism*. Seoul: Acanet.

- 신상규 (2020). “왜 지금 포스트휴먼인가?” 신상규 외.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파주: 아카넷.
(Translated in English) Shin, S. G. (2020). Why Posthuman Now? Shin, S. G. et al..
The Posthumans are Coming. Paju: Acanet.
- 우정길 (2020). 포스트휴머니즘과 인간의 교육. 서울: (주)피와이메이트. (Translated in English)
Woo, J. G. (2020). *Posthumanism and Human Education*. Seoul: PYBook.
- 우정길 (2021). “교육학과 포스트휴먼-이즘 담론의 임계점에 대하여”. 우정길 엮음. 포스트휴먼
니즘과 교육학.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Woo, J. G. (2021). On the Critical
Point between Education and Posthuman-ism Discourse. Woo, J. G. (ed.). *Posthumanism
and Education*. Seoul: Hakjisa, Inc.
- 우정길 (2021). “서문: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학: 논의의 지형과 의미에 관하여”. 우정길 엮음.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학.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Woo, J. G. (2021).
Introduction: Posthumanism and Education: Exploring the Map and Significance of
Discussion. Woo, J. G. (ed.). *Posthumanism and Education*. Seoul: Hakjisa, Inc.
- 이규민 (2016). 포스트모던 시대의 통전적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Lee, K. M. (2016). *Holistic Christian Education for the Postmodern Era*. Seoul:
Publishing House of PCK.
- 이영의 (2020). “사이보그: 인간에서 초인으로? 기계가 된 인간”. 신상규 외. 포스트휴먼이 몰려
온다. 파주: 아카넷. (Translated in English) Rhee, Y. E. (2020). Cyborg: From Human to
Superhuman? The Machine-Enhanced Human. Shin, S. G. et al.. *Posthumans are
Coming*. Paju: Acanet.
- 천현득 (2016). “인간향상 기술을 통한 포스트휴먼 되기: 인간 본성은 여전히 쓸모 있는 개념인
가?”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와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엮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파주:
아카넷. (Translated in English) Cheon, H. (2016). Becoming Posthuman through Human
Enhancement Technologies: Is Human Nature Still a Relevant Concept? Korea Institute
of Posthuma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sthuman Society (eds.). *The Human in
the Posthuman Era*. Paju: Acanet.
- 하대청 (2106). “슈퍼휴먼이 된 장애인: 아바타, 트랜스휴머니즘, 교정의 명령”. 한국포스트휴먼
연구소와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엮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파주: 아카넷. (Translated
in English) Ha, D. C. (2016). People with Disabilities Becoming Super-Human: Avatars,
Transhumanism, and the Imperative of Rectification. Korea Institute of Posthuma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sthuman Society (eds.). *Humans in the Posthuman Era*. Paju:
Acanet.
- 한기철 (2021). “교육철학적 관점을 통해 바라본 기술-미래 담론의 성격”. 우정길 엮음. 포스트

휴머니즘과 교육학.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Han, G. (2021). The Nature of Technology-Future Discourse through an Educational Philosophical Perspective. Woo, J. G. (ed.). *Posthumanism and Education*. Seoul: Hakjisa, Inc.